

# 한국전력 → 삼성전자 → SK하이닉스

KOSPI 9,115pt (+0.7%), KOSDAQ 968pt (+0.2%)

## ① 해외 사항 미국 휴장, 잡음은 존재하나 협상 진행은 ing

- 미국 주식시장 휴장. 주말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등 잡음은 존재 하나 현재도 스위스에서 협상 진행 중

## ② 수급 리밸런싱 수급 변동성 속 9천피 사수·천스닥 붕괴

- KRX KOSPI 현물 기준 개인 +2.2조, 외국인 -2.5조, 기관 +0.3조원 순매수. 전주 순매수 전환했던 외국인 재차 순매도. 개인투자자로 재차 바톤 터치. 3.3조 순매수 중 대형주 3.2조, 전기전자 1.5조, 제조업 2.2조 순매수(거래소 합산 기준)

## ③ 특징업종 상승 업종은 축소

- 오늘도 양 지수 상승했으나 상승 업종 축소 및 쓸림 현상 지속. KOSPI KOSDAQ 모두 상승 업종은 반도체로 축약. 코스피 상승 종목 148개 Vs. 하락 종목 742개. 코스닥 상승 종목 383개 Vs. 하락 종목 1297개

## ④ 이벤트 이번주 3대장 = 24일 MSCI 선진국 편입, 25일 마이크론 실적, 26일 PCE

- 1)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연설(22일 오후 10시)

## ⑤ 사항 SK하이닉스의 삼성전자 시가총액 역전 현상에 대한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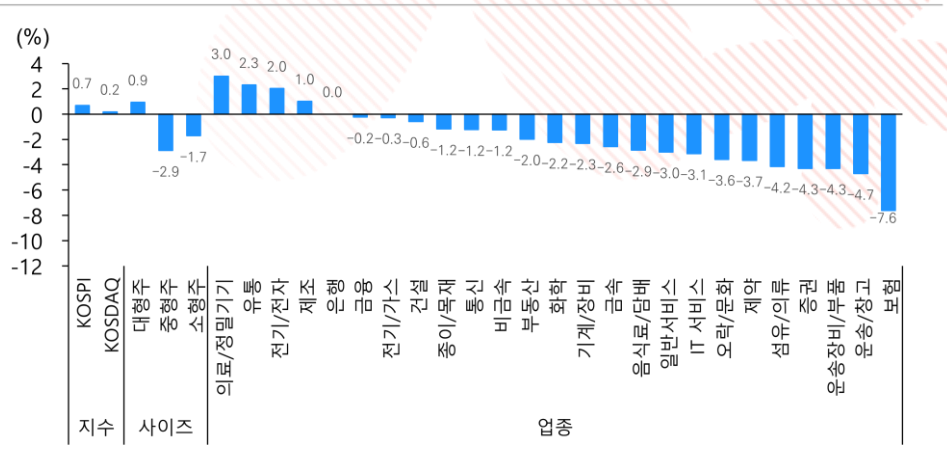
- 금일 KOSPI 0.7%, KOSDAQ 0.2% 상승.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에서 SK하이닉스로 바뀌는 역사적 사건 일어나며 SK하이닉스(+5.6%), SK스퀘어(+10.7%) 주도 신고가 경신. 21세기 삼성전자가 한국전력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은 이후 최초로 KOSPI 대장주가 바뀌는 순간. 핵심은 금일 발표된 6월 1~20일 수출. 620억달러로 전년 대비 +60.4%, 수입은 445억 달러로 +23.2% 증가. 핵심은 반도체, 수출 255억달러, +188.4%(YoY)로 전체 수출 비중 +41.2%까지 확대.
- SK하이닉스의 삼성전자 시가총액 역전 현상에 대한 고찰: SK하이닉스 금일 증가 기준 시가총액 2080조, 삼성전자 2066조원으로 삼성전자 보통 주 추월.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역전을 단순 쓸림이나 과열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금일 증가기준 12개월 선행 PER은 SK하이닉스 8.07배, 삼성전자 6.87배에 불과(마이크론 대비 양 종목 모두 저평가). 즉, 시장이 SK하이닉스에 부여한 PER 프리미엄은 17.5%. HBM 주도권, 고부가 D램 비중,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마진 레버리지, AI 데이터센터향 순수 노출도를 감안하면 이정도 프리미엄을 과열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삼성전자는 DS 내부에서도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 LSI가 섞여 있고 그룹 전체로는 DX 사업부가 메모리 가격 상승을 원가 부담으로 떠안는 구조. 최근 사업부 노조간 성과급 관련 갈등 및 이해관계 충돌 같은 복합적 문제도 존재. 반면 SK하이닉스는 HBM과 메모리 연합 개선이 이익과 ROE 개선에 더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순수 AI 메모리 프록시
- 특히 핵심은 ADR 상장.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은 단순 해외 투자 접근성 개선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편입 가능성을 여는 이벤트. 편입 시에는 반도체지수 추종 패시브 자금 유입, 미국 반도체 피어(마이크론 대비 현재 밸류에이션 할인 여전히 받고 있는 상황)와의 밸류에이션 비교 확대, 글로벌 투자자 저변 확장 효과 기대. 이번 시가총액 역전은 이익 규모 대비 과열이 아닌 이익의 질과 시장 접근성 변화에 대한 멀티플 재평가로 여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SK하이닉스 8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신고가 랠리 이어지는 가운데 이평선과의 괴리율 커졌고 RSI(14일) 또한 76.2로 과매수 구간 진입. 언제든지 기술적 조정 가능하나 추세적 훼손 아니라는 판단. 기술적 조정시 삼성전자 및 반도체 소부장 키맞추기가 오히려 기대. 한국시간 25일 새벽 발표될 마이크론 실적, 확인 후 반도체 이익추정치 재차 상향 기대. 이후 2분기 실적시즌으로 연결될 현재. 오늘도 수출로 증명한 호실적 반도체, IT 중심으로 대응할 필요 재차 강조

당일 투자자별 순매수대금

| (단위: 억원) | KOSPI   | KOSDAQ |
|----------|---------|--------|
| 기관       | 3,038   | 1,492  |
| 외국인      | -25,466 | 3,115  |
| 개인       | 21,507  | -4,622 |
| 거래대금     | 414,049 | 90,527 |

자료: 인포맥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일간 수익률



자료: 인포맥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ppendix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재원)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